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한눈에’...활성화는 ‘필요’

장애인의 날 ‘무장애 남구 BF’ 앱 써보니

2019년 행안부 공모 선정 이듬해 출시
접속 문제 운영 중단...작년 11월 재개
전용 화장실·점자 블록·경로 등 제공
다운로드 미미 ‘이용자 입력 방식’ 한계

광주 남구에 ‘무장애 남구 BF’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내 건물과 도로 등에 존재하는 장애인 편의 시설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재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해당 시설 등 정보 제공을 위한 등록 방식이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구조인 탓에 재개 5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공백 상태인 곳도 다수여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무장애 남구 BF’ 앱을 이용해 찾은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국밥집 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만, 앱에는 미등록돼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서형우 기자

20일 남구에 따르면 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약 1억6천600만원과 구비 2천900만원가량을 들여 ‘무장애 남구 BF’ 앱을 만들었고, 2020년 1월부터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접속 장애 등의 문제가 발견돼 2022년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됐으나, 개선 작업 후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재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무장애 BF 앱은 지체 장애인을 위해 관내 건물의 출입구 단차 또는 경사로 설치 여부와 전용 화장실, 전동 휠체어 충전기 등의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 장애인에 대해선 점자 블록과 메뉴판 등의 설치·제공 유무와 함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한다.

실제 장애인의 날(4월20일) 이날 오전 무장애 남구 BF 앱을 이용하며 찾은 남구 양림동 한 고깃집은 근처 인도의 재질과 출입구 경사로 설치·점자메뉴판 사용 여부 등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남구 관계자는 이 같은 정보를 통해 장애인들

이 각각의 상황에 맞는 곳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림·봉선·주월·사직동처럼 상권이 활성화돼 생활 인구가 비교적 많은 곳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정보 제공 수준이 부실해 보완이 필요해 보였다. 특히 대촌·효덕·송암·진월·방림동의 경우 건물은 물론이고 도로 시설물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었다.

또 봉선동 한 국밥집의 경우 경사로가 설치돼 있었지만, 앱에는 등록되지 않아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는 정보 제공이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커뮤니티 매핑’ 방식에 따른 한계로 분석됐다.

이용률이 높을수록 정보도 풍성해지는 구조인데, 무장애 BF 앱은 서비스 재개 이후 5개월여 동안 다운로드 건수가 100건을 겨우 넘어섰던 것으로 확인돼 참여를 견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외에도 제공되는 정보가 주로 지체·시각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한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정보 입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관내 건물과 도로 등 시설 전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정보 제공을 늘리기 위해 최근 ‘장애인편의시설 조사단’을 모집했고 이용자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체·시각 장애인의 수요가 높아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보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관련 단체를 통해 수요를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앱을 만들어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며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홍보·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형우 기자

화물연대 전남지부 간부, 진주 CU 파업현장서 숨져

대체 물류차량 막는 과정에서 참변

화물연대 전남지부 간부가 경남 진주 소재 한 물류센터 파업 현장에서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2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 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2분께 진주시에 위치한 CU 물류센터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화물연대 노조와 경찰이 부딪혔다.

당시 경찰은 대체 화물차의 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연좌농성을 벌이던 조합원들을 일직선 위 박스로 유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체 화물차가 출발하자 노조 측에서 이를 가로막았는데, 이 과정에서 4명이 쓰러졌

고 1명은 차량에 치였다. 해당 노조원은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나머지 3명도 중·경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노조원은 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지 부장으로 확인됐는데, 그는 전국 각지의 파업과 집회에 순회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은 CU 배송 기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16일째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무리한 강제 진압과 대체 차량 투입이 빚은 참사”라며 “정부와 경찰은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찬용 기자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 20일 광주 북구 용봉동 용봉제 인근 도로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광고물관리팀 직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자치구별로 1곳을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북구 제공>

‘무자격 강사’ 채용 前 전남도립대 학과장 검찰행

광주경찰, 교원 9명 등 19명 송치

자격이 없는 강사에게 강의를 맡기는 등 비위 의혹을 받는 전(前) 전남도립대학교 학과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뇌물수수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전 전남도립대 모 학과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비위 행위와 연관된 18명을 함께 검찰에 넘겼는데, 이 중 9명은 교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남도립대가 올해 초 국립목포대학교와 통합되기 전 특정 학과 강의를 무자격 강사에게 주고 그 대가로 강의료 일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특정 학과의 정원 미달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짜 학생을 유지하고 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 일부도 총당해주며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치로 광주경찰청은 전남도립대 당시 모 학과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인재영 기자

경찰 조사 대기 중 약물 복용 20대女 숨져

광주동부署 피의자 대기실서

경찰, 약 성분 분석·부검 의뢰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기다리던 중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피의자가 결국 숨져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후 5시50분께 피의자 대기실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던 A(20대·여)씨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이후 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체포됐다.

현행범이었던 만큼, 이송 후 조사를 기다리던 대기실에서 A씨는 수갑을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가 지병을 앓고 있었다며 약을 먹어야 하니 물을 줄 것을 요청해 이에 응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가 먹었다는 약의 성분 분석을 맡겼고 그의 시신에 대해서도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이다. /인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